

連珠、蓮瓣、雨點、重圈文 등을黑白象嵌으로 나타내었다. 側面은 위에 鋸齒形의菊花瓣帶를 아래에 완자文帶를 두었다. 밑좌에서는 側面에 위에 口緣部에 連하여 완자文帶. 그 밑에 커다란菊花瓣帶를 두었고 그 밑에 蓮瓣文帶를 두어 이를黑白象嵌으로 나타내었으며 上·下의 蓮瓣內에는 二―三點의 白象嵌點을 찍고 있다. 釉藥은 연회색을 머금은 靑磁料로서 微細한 氷裂이 있으며 뚜껑과 밑좌 一部의 溶融狀態가 極히 不良하다. 이 舍利盒은 浮屠身의 下部와 上臺石의 中間에 있었다 하나 裝置 狀態는 알 수가 없다.

이 浮屠가 失名이기 때문에 年代를 的確히 알 수 없음을 심히 유감스러우나 浮屠의 樣式으로 볼때 頂部의 寶珠가 同寺內의 普濟尊者 石鍾頂部의 것과 거의 같고 其他部分은 通式에서 退化되고 간략화되고 全體의 으로 中庸한 모습을 들어내고 있어 麗末의 것이라 하는 것은 알 수 있으며 寶珠自體도 普濟尊者石鍾<sup>②</sup>의 것보다 약간 退化된 手法를 보여 주어 石鍾以後의 것으로 보고자 한다. 또한 新增東國輿地覽 卷之七 驪州牧佛宇條金守溫란에 「(上略)昔玄陵王師懶翁、韓山牧隱李公二人、相繼來遊由是寺遂藏左名利、越成化九年、大王大妃殿下、命有引因舊更創、賜額報恩(下略)」이라 한 것을 보면 懶翁과 牧隱以後에 名利이 되었고 成宗四年(一四七三)에 가서 更創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만한 規模의 堂堂한 浮屠가 세워지려면 亦懶翁、牧隱以後에 名利이 되고 高僧의 相繼함이 있는 然後에야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바이다.

舍利盒은 그 形態에서 慈靜國師舍利盒보다는 李朝의 此種 盒形<sup>③</sup>에 가까운 것으로 특히 굽은 李朝磁器의 特質인 竹節굽을 하고 있다. 또한 紋樣에서는 커다란 菊花瓣이나 雨點文·완자문 등은 麗末·李朝初에 걸쳐 많이 使用되었으며 蓮瓣內의 點은 麗末의 靑磁象嵌窯址의 破片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鋸齒文形菊花瓣은 李朝에 들어와 初期粉靑沙器에서 많이 使用되고 있다.

以上 몇가지의 形態乃至 文樣에서 推定한건대 麗末·鮮初의 特徵을 함께 지니고 있어 大體로 一三九二年을 前後 數十年間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盒直徑 一七·一 cm 뚜껑높이 五·五 cm 밑좌 높이 八·一 cm 굽直徑 七·二一八·〇 cm 總高 一三·〇 m

註

- ① 「年代의 極めて 明存る 高麗象嵌靑磁と彫三島」陶磁六卷六號 中尾萬三 一九三四·十二月 東京
- ② 國寶圖錄 第五輯 石塔篇 圖版一一六面 同解說 七〇面
- ③ 朝鮮古蹟圖譜 十三卷 二一四三面 六一二號、二一四六面 六一二五、六一二六號

### 堤川長樂里模塼石塔基壇部調查

姜 仁 求

長樂里七層模塼石塔은 文敎部에 依하여 六七年 六月 二十三日에 寶物 第四五九號로 指定되고 이어 六七年 十二月 부터는 全面解體修理에 着手하여 現在 施工中에 있다. 塔身部는 六八年 一月까지 解體를 完了하고 基壇部는 解水期를 기다려 今年 四月 十九日부터 再開하기에 이른 것이다. 本來 本工事は 秦弘燮、崔熙淳、兩文化財委員과 孟仁在 專門委員이 監督調査하기로 된 것이나 筆者도 基壇部 解體調査에 參與하게 되어 여기에 그 調査結果를 記錄하여 두고자 한다.

#### 一、構造 및 地層位(圖一、二)

基壇部는 塔身의 規模나 構造에 比하여 簡略하여 一層身部 下端에 바로 地臺石을 設置하여 地下部와 連結하고 塔身部의 荷重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構造가 基壇部構造의 全部로서 地臺石은 南半은 커다란 板石 一個를 놓고 北半은 四個의 長臺石으로 連結하여 놓고 다시 東側 西端 一個를 따라 三個의 돌로 補完하여 全體의 方形을 맞추었다. 그리고 板石과 長臺石이 서로 接合하는 處는 서로 잘 맞도록 다듬어 끼웠다. 板石 間은 中間이 南北으로 切斷되었으나 外部側面과 上面은 잘 治石하였고 두께도 三·八 cm나 된다.(圖一) 長臺石들은 老衰하고 治石狀態도 대체로



粗雜하게 되어 있다. 두께도 板石보다 얇아서 二〇—二五cm 정도고 規模나 結構 모두 貧弱하다. 이들 地臺石은 地表에 十二cm 露出되어 있고 그 以下는 地中에 埋沒되어 있다. 그리고 表面도 板石 上面 南端을 基準하여 板石의 北端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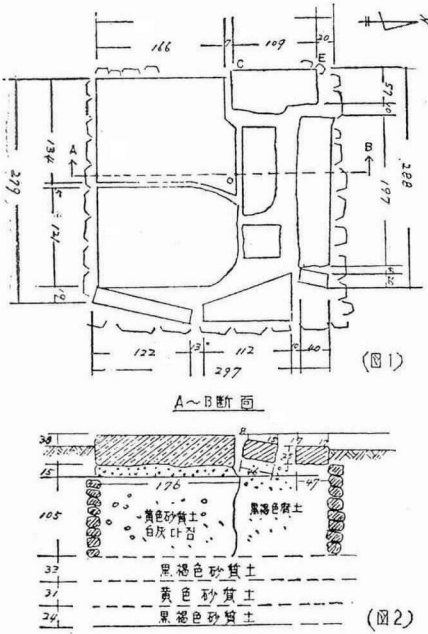
약간 沈下하고 長臺石들은 十五—十七cm 沈下되어 있다. 地臺石 卽下에는 礫石과 黑褐色의 腐土層이 十五cm 가량 되고 그 下部는 地臺石의 東西南北 各面端에서 外部로 範圍를 대략 七〇—八〇cm 擴大시켜 雜石과 川石을 混用하여 一·〇五m 높이로 쌓고 있다. 돌의 크기는 一定하지 않으나 長七〇—八〇cm 幅三〇cm 의 돌들이다. 内部端은 地臺石의 外端 垂直線下에 약간 물리거나 또는 그 線으로부터 始作한다. 築石狀態는 東西南側은 整然하게 一列一個石으로 되어 있으나 北側은 內傾하였거나 一部가 脫落되어 地臺石의 沈下部分과 一致한다. 築石의 外面은 面을 주지 않고 直線만을 維持하여 그것이 外部露出이 아니라 單純히 上部의 基礎로서만 充實하게 되어 있다. 이 築石内部에는 대부분 흙으로 充填되고 川石과 雜石이 少量 섞여 있을 따름이다. 築石이 끝나는 上面의 土質이 地臺石의 板石을 놓은 部分과 長臺石을 쓴 部分이 確然區分되어 이들 成土層位를 알아 보기 爲하여 그곳에 長一m 幅六〇cm 의 Pit을 東西長軸으로 하며 深一·七〇m 되게 넣고 이 斷面에 나타난 地層을 注意하며 築石内部의 흙을 견어 내려간 結果 그 地層은 圖面二와 같다.

二、發見遺物

- ① 白磁鍾子破片數個
  - ② 金銅片三點
  - ③ 金銅佛像一點
  - ④ 鐵片三點
  - ⑤ 舍利藏置石材一個
- 이들 遺物들은 舍利藏置石材를 除外하고 모두 圖面에서 COBE, 卽 地臺石下 西北側黑褐色腐土內에서 아무 施設없이 또 相互連關없이 無秩序한 狀態로 發見되었었다.

① 白磁鍾子破片은 金銅佛像과 함께 가장 注目을 끌게 하는 것으로서 北側石扉下 枋石下 一〇cm 地點에서 發見된 것으로 一點의 鍾子 또는 크기가 비슷한 다른 하나의 그릇이 깨어진 것이며 表面의 釉藥色이 거의 灰色에 가깝고 또 器型이 말해 주듯이 李朝後期에 屬한다.

② 金銅片三點은 그 크기가 각기 다르나 가장 큰 것이 長八·七cm 幅六cm 로 一定한 形態는 없으나 一面은 圓弧의 一部로 생각되고 다른 面은 破損된 대로다. 質은 極히 얇은 銅板에 渡金의 흔적이 약간 남아 있다. 다른 一個의 金銅片도 대체로 이와 비슷하다. 이들의 原狀은 相輪部의 一部分인지 舍利容器的 破片인지 알 수 없다. 三點中 가장 적은



金銅片은 幅軸 共히 三·五 cm 이고 質이나 狀態도 前記 二點과 같으나 形態는 달라서 三面이 面角을 이루고 某種의 形象을 押印한 흔적이 남아 있다. 어떠한 器具의 破片인지 亦是 알 수 없다.

③ 金銅佛像(寫眞)

如來立像으로 高 七·四 cm 肩幅 二·五 cm. 다른 遺物과 같이 腐土中에서 頭西顛倒의 狀態로 發見되었다. 相好는 圓滿하고 素髮에 肉髻는 크며 목은 짧다. 通肩衣를 걸치고 兩手는 現掌하여 與願印相을 나타내고 있다. 어깨는 둥글어서 마치 圓弧의 一部를 이룬듯 하고 허리는 가늘며 兩肢는 肉彫로 하였으나 足部는 缺失되었다. 衣紋은 上下로 流麗하나 胸前에 裙衣를 나타내고 그 아래는 基線을 陰刻하였으며 兩肢部分은 橢圓形으로 나타내어 肉彫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였다. 背面은 空筒을 兩分한 듯 하며 光背를 附着하였는 小孔이 있다. 新羅統一期樣式이다.

④ 鐵片三點

原形을 알 수 없는 鐵片으로 腐蝕이甚하고 佛像가 가까이서 發見되었다.

⑤ 舍利藏置石材

거의 中心地點 强灰다짐한 黃色砂質土中에서 上面을 向南하여 橫臥의 狀態로 發見되었으며 石質은 花崗岩이나 風化가甚하여 表面은 손을 딸 수 없을 程度이며 더구나 孔이 直徑線으로 切斷되어 半身만이 發見되었다. 餘他半身이나 舍利藏置에 반드시 附隨되는 蓋石이나 內藏遺物은 精密한 調査에도 不拘하고 그 흔적도 檢出해 내지 못하였다. 孔의 內面은 下部로 내려갈수록 거의 直線으로 狹少하여져서 底에 가깝다.

三、結語

以上 基壇部의 狀態에서 다음 事項들을 推測할 수 있을 것이다.

① 地臺石中 南半側 板石下의 黃褐色砂質土를 强灰다짐 한것은 一次의 開塔重修時이루어졌을 것이다. 半破된 舍利藏置孔만이 이 中에서 發見된것은 더욱 그러할 것이며 이는 開塔의 緣由와도 關聯이 있을 것이다.

② 北半側이 南半側의 强灰다짐한 層과는 달리 腐蝕土(周圍耕作田土와 質이 같음)로 充填된 것과 周圍築石이 攪亂된 것은 開塔重修와는

關聯없이 立塔狀態에서 北側築石으로 부터 侵害되었을 可能이 크며 佛像等 遺物이 이 部分에서 無秩序하게 發見되었다. 따라서 이들 遺物은 舍利藏置孔과는 關聯이 없을 것이다.

③ 또 北側地臺石下 一〇 cm 地點에서 李朝後期の 白磁破片이 發見된 것은 侵害의 時期를 暗示한다.

④ 塔身이 北側으로 傾斜된 것은 地臺石下部의 腐蝕土와 築石의 攪亂에서 地臺石이 沈下된데 理由가 있을 것이다.

考古美術 一〇

◎ 文化財委員會 第一分科 第七次會議

一九六八年 三月二十二日 下午二時 文化財管理局長室에서 李弘植委員長司會로 開催 出席委員 金岸基, 李弘植, 金允基, 秦弘燮, 崔淳雨, 趙明基, 金元龍, 裴吉基, 討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一、慶北 月城郡 陽北面 奉吉里 史蹟第一五八號 文武大王陵 指定區域內에서 生産되는 海産物의 採捕에 關한 慶北教育監으로부터의 質疑——指定區域 및 保護區域內에서 水産物(全種目)의 採捕는 不可하며 參拜 以外의 一般船舶의 停滯도 不可한

二、慶南教育監으로부터 進達해온 昌寧火旺山城 指定區域 一部解除申請의 件——否決

三、慶南教育監으로부터 申請해온 史蹟一一二號 晋州城內에 市立圖書館新築을 爲한 現狀變更의 件——再調保留

四、慶州市有料都市公園 造成計劃을 爲한 月城地區 發掘, 同一帶의 文化財管理權을 市에 委任, 同公園施設을 爲한 史蹟址의 現狀變更 等を 包含한 慶州市長으로부터의 申請——否決하며 月城隣接地域中 未指定地域을 早速하게 調査해서 追加指定할 것.

五、智異山地域所在 指定文化財의 保護區域策定의 件——求禮華嚴寺所在 文化財의 保護區域은 寺刹周圍山의 陵線을 境界線으로 하고 寺刹入口의 撤去部